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2:41-52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지혜를 찾아서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21일	1월 28일
윤한진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10)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문 : 눅2:36-40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기쁨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회복시킬 인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으로 시작된 성전의 역사는 솔로몬 성전에서 스톱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치며 2번이나 세워진 후 무너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성전을 보호하던 서쪽 외곽벽만 남아 통곡의 벽이라 불리며 정치적 메시아를 간구하는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는 오늘도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혀 다른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을 찾았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단번에 알아본 시므온은 그가 앞으로 비방 받는 표징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전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 줍니다.

시므온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 나이가 많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시간의 고난과 고생을 겪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나는 결혼 후 7년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결혼 정령기는 15세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20대 초반에 과부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가 84세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약 60여년의 세월을 과부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과부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전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저주 받은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온갖 사회적 비난과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만해도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치열하고 고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가 그 현실의 삶에 파묻혀 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금식은 외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세상의 양식을 끊고 하늘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 어두운 세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안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합니다.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좋다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성전 중심적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